



#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의 시각

## 하나님의 선지자

이슬람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 사람들을 그 분께 안내하고 인류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슬람교에서는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선지자를 믿어야 하며, 그들 모두를 언급할 때는 존중과 공경이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러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존중되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이슬람에서 매우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무슬림이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는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를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대로 존경을 담아 항상 '그에게 평화가 깃

들기를'이라는 기도문을 암송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의 성서, 성 꾸란에 이름이 언급된 소수의 선지자 중 한 명이다.

3장 4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 이름은 메시아 예수시니라. 그는 현세와 사후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고귀한 신분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 인지

성 꾸란에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명예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동정녀 탄생을 단언한다. 성 꾸란에서는 그에 대해서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셨노라.  
(3장 43절)*

성 꾸란에서도 인간 아버지 개입이 전혀 없이 탄생한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탄생이 흔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처녀 출산이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 꾸란에서는 또한 하느님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희귀성이 예수님을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 분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노라  
(112장 2-5절)*

성 꾸란에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단일성을 전파하는데 힘썼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할 때 지지를 받으며, 그러한 언급은 다른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하는 유사한 진술들에 일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이러한 언급은 그런 사람들의 영성이 아닌 신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슬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인간이다.

## 신성한 사명

성 구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선지자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야이다.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신성한 사명은 모세법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영적 활력을 되찾는 것이었다.

성 구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61장 7절)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한 글귀가 담긴 성경과 일치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또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라다크(Ladakh) 풍경의 일부 - 인도 잠무 카슈미르 주 지역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손자 야곱에게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열 두 아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오신 것이다.

## 십자가에서의 죽음?

성 꾸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성 꾸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다만 예수가 못박힌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뿐이며... (4장 158절)*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못 박혀 있는 동안 예수님에게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계속 가해진 끔찍한 고문의 결과로 그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며, 때때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약 3~6 시간 동안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요일은 금요일이었는데, 유대 법에 따라 일몰 전에 그를 끌어 내려야만 했으며,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예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도 그의 생존을 예언했는데, 그는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 요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밤 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도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밤 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며, 그의 진리의 상징은 선지자 요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상징과 유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요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의 기적같은 시련 동안 살아 남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에게 운명 지워진 기적같은 시련에서 역시 살아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존의 증거는 니고데모(Nicodemus)라는 의사가 십자가에서 끌어 내려진 예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안치되었던 장소로 약초를 가져왔다는 성경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가 가져온 다량의 약초는 이것이 이후 며칠 동안 치료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리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풍경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에게 주어진다.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후 예수님이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실제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36-43절).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기 위해 겟세마네(Gethsemane)에서 기도를 드렸고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의 명예를 유지시키기 위해 그의 기도를 받아들였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십자가에서 살아 남았고, 이것이 그의 진리의 상징이라는 이슬람의 시각을 지지한다.

*구원자인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4장 158절)

## 사라진 부족을 찾아서

십자가에서 살아 남자 마자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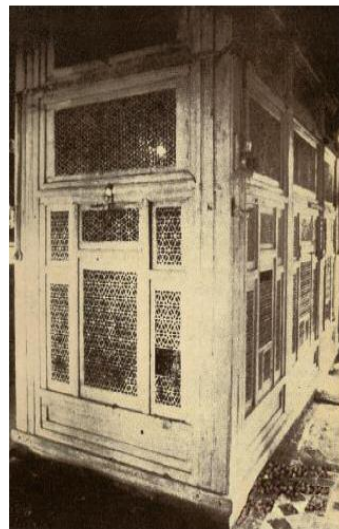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는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당시 두 지파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나머지 지파는 페르시아, 인도, 카슈미르에 걸쳐 흩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에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및 주변 지역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사적 증거와 (언어, 민속, 관습과 전통 포함), 인도에서의 예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존재는 고대 인도의 문헌과 카슈미르의 기록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문헌을 보면 예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 자손인 유수(Yusu, 예수의 히브리어)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쓰여 있다.

아마도 무슬림들은 예수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완료한 후에, 120세의 나이로 인도, 카슈미르(Kashmir)에서 자연사했다고 믿고 있다.

예수의 무덤은 인도 카슈미르 주(Kashmir)의 주도 스리나가르(Srinagar)의 칸자르(Khanjar) 지역에 현재 존재한다.



인도 카슈미르 주(Kashmir)의 주도 스리나가르(Srinagar)의 유즈 아삽(Yuz Asaf, 예수)의 무덤

그것은 선지자 유즈 아삽(Yuz Asaf, 예수, 모으는 자라는 뜻)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 동안 숭배되어 왔다.

지역 주민들도 또한 그 무덤을 로자발(Rozabal)이라 부르는데 그 의미는 "예언자의 무덤"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끔찍한 시련에서 살아남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자신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삶을 살았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에게 어울리는 찬사이다.

## 선지자 예수의 말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가복음, 12장 29절)

###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 선린 의식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 자비

산상설교 중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임이요(마태복음 5장 7-9절)

### 인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 6장 35절)

###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44절)

성경은 예수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예언을 포함하여 이슬람의 거룩한 설립자에 대한 것, 거룩한 선지자 무함마드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후기의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아마디 무슬림은 그들의 설립자, 하즈라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zrat Mirza Ghulam Ahmad)가 예수님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재림에 관한 예언을 완수했다고 믿는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LoveForAllHatredForNone.org](http://www.LoveForAllHatredForNone.org)

대한민국 아마디아 무슬림 커뮤니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덕동 63-2번지 2층

전화 & 팩스: +82-53-294-2234

[www.alislam.org](http://www.alislam.org) • [www.mta.tv](http://www.mta.tv)

Email: [info.ahmadiyya.korea@gmail.com](mailto:info.ahmadiyya.korea@gmail.com)

충성심

자유

평등

존중

자유